

화성 동탄 신도시 현상 설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최영택 현대산업개발 부사장

“ 젊고 활기가 넘치는 녹색 도시로 꾸며야 ”

‘화’ 성 신도시를 설계하면서 떠올렸던 이미지는 녹음이 우거진 공원의 잘 포장된 도로에서 젊은 부부가 헤드 기어를 착용하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컨셉도 ‘신나는 녹색 도시’의 구현으로 정했지요.”

최영택 현대산업개발 부사장은 화성 동탄 신도시 시범단지 40만평에 대한 도시 전체의 설계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한국토지공사에 주최한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시범단지 설계 공모에 현대산업개발, 무영건축, 한아도시연구소 직원들로 구성된 설계팀을 이끌고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세 회사에서 우수 직원을 뽑아 만든 설계팀의 한 달 보름 동안의 헌신적인 설계 작업이 빛을 발한 것이다.

토지공사의 화성 신도시 현상 설계 공모전에는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19개 업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설계 공모전에서 당선된 업체에게는 택지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었다. 토지공사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업체에게는 4만㎡, 우수작 3만㎡,佳作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2만 5,000㎡씩 공동주택 용지를 우선 분양하기로 하였다. 결국 심사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1위를 차지하였고, 우수상은 포스코건설·월드뷰의 공동 작품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화성 신도시는 화성시 동탄면 일대 274만평에 총 4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도농 복합형 계획 도시이다.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시범단지 설계를

공모한 것은 분당 이후 화성 신도시가 두 번째이다. 그리고 최영택 부사장은 이 두 번의 설계 공모전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지난 1989년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 설계 공모에서도 설계 담당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설계에 참여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은 시범단지 택지 우선 분양권과 토목 공사 시공권을 따냈었다. 최영택 부사장은 “분당 시범단지 설계에서 국내 최초로 30층 아파트 단지를 선보여 이후 고층 아파트 단지의 전범이 되면서 보람을 느꼈다”며 이번 화성 신도시의 ‘녹색 도시’ 설계안도 친환경 도시 개발의 모델로 활용되기를 기대하였다.

최영택 부사장이 화성 신도시 시범단지를 설계하면서 모토로 삼은 ‘신나는 녹색 도시’는

젊음이 넘치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동탄 지역이 농촌임에도 인근에 첨단 전자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 부사장은 시범단지를 즐거운 거리 만들기, 활기찬 도심 공간 만들기, 살고 싶은 동네 만들기 등 3가지 주된 테마로 구분해 특화하였다. 특히, 주거 단지의 경우 생활가로는 공간을 배치하였다. 주거 단지 사이를 광장과 비슷하게 만들어 야외 노천 카페가 들어서거나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친환경 개념을 접목시켜 전체 단지를 세로로 분할하는 3개의 녹지 축을 살려 자연과 건물이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아파트 평면은 리모델링을 대비한 선진 구

조 및 설비 시스템 도입 등 미래 지향형 평면을 개발해 적용했다.

“30년 가까이 건축 설계를 해오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현대 브랜드가 붙은 많은 아파트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아파트는 집만 있고 동네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이버 기기로 채워진 아파트가 훌륭하다는 인식은 자칫 집의 가치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도 사람 냄새가 나는 생태형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